

만주국의 기원 만들기와 ‘건국신화’의 창출 원리*

—최남선의 『만몽문화』를 중심으로

천 춘 화**

요약

본고는 최남선의 『만몽문화』를 시대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그 갈래를 읽어내고자 한 글이다. 최남선은 1938년 4월 30일 만주 건국대학의 유일한 조선인 교수로 부임하였고 대학의 문교연구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만몽문화”를 강의하였다. 『만몽문화』는 그때의 강의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만주 건국대학은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선양하고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학부였고 건국대학연구원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와 제도 및 방침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이었다.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樂土)”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만주국은 1935년 푸이(溥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황도정치(皇道政治)”로 선회하고 식민지말기에 이르면 “신도(神道)”의 강조와 함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만주국의 건국신으로 신봉하기에 이른다. 최남선의 『만몽문화』는 이와 같은 만주국의 새로운 기원의 창출과 맞물려 있었다. 『만몽문화』에서 최남선은 중국 동북지역의 기원 설화는 부여의 건국신화였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기원으로서의 조선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글은 최남선의 이러한 행보를 만주국적 맥락에서 짚어본 것이다.

주제어: 최남선, 만몽문화, 만주국 건국대학, 신도, 건국신화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목차

1. 시작하며
2. 만주국 건국대학교 『만몽문화』
3. ‘건국신화’ 만들기와 기원의 창출
4. 만주시절의 최남선과 ‘협화’의 논리
5. 맺으며

1. 서론

한국문학사에서 육당 최남선(1890-1957)은 춘원 이광수(1882-1950)와 더불어 1910년대 한국문단을 ‘2인문단시대’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근대문학 초창기에 한국의 근대문학을 개척했던 작가였고 문학을 위한 발표지면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던 출판인이기도 했다. 1907년부터 15년 가까이 신문관을 운영하면서 『소년』, 『청춘』 등과 같은 대표적인 근대 잡지를 발행하였고 교양서, 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도서의 출판에도 힘쓴 바 있다.

최남선의 출발은 작가이자 출판인이었지만 3.1운동을 계기로 그는 민족지사로 거듭난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2년 8개월의 옥살이를 하였고, 일본의 단군 날조설에 대항하여 ‘단군론’을 내놓았으며, 그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놓이는 것이었다. 단군 연구의 골자를 이루는 것이 『불함문화론』이었고, 하지만 단군의 실재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 작업이 결과적으로 단군과 민족주의를 분리시키고 나아가 조선만을 위한 그 어떤 민족주의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¹⁾ 『불함문화론』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최남선의 친일 행적을

1) 서영채,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최남선의 『백두산 근참기』』, 『한국근대문학연구』6, 한국근대문학회, 2005.

비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지을 문제는 아닌 듯하다. 『불함문화론』은 도리이 류조(鳥居 龍藏)의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모방하고 전유함으로써 일본과 조선의 문화적 동원성을 증명 한 논저였고 이러한 논리는 1930년을 전후하여 대두한 식민당국의 일선동조론과 만나게 되면서 그 논리 속에 흡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십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²⁾

『백두산 근참기』, 『불함문화론』을 계기로 최남선은 본격적인 고대사연구와 민속학연구로 나아가게 되며 이러한 작업의 기저에는 항상 단군론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러던 최남선이 1931년 7월에서 1933년까지 예외적으로 긴 침묵의 기간을 가지다가 1934년부터 그가 했던 일은 신사를 방문하고 만주지역을 기행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1938년 4월 5일, 『매일신보』에 『송막연운록』³⁾을 연재하던 중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하기 위해 경성을 떠난다. 건국대학에 재직 중이던 1941년에 '만몽문화학' 강의(2월 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총 18회에 걸쳐 진행)를 맡게 되며 그 강의록을 엮은 것이 바로 『만몽문화』였다. 이 글은 강의록으로서의 『만몽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만몽문화』는 『백두산 근참기』와 『불함문화론』 그리고 『송막연운록』에 이어지는 저작이었고 최남선의 해방 전 마지막 저서이자 만주국 건국대학에서의 강의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만주국 건국대학과 관련하여 또는 만주국 이데올로기의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최남선의 사상적 이력을 추적하는 데에 편향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정준영, 강해수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2) 윤영실,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아연출판사, 2018, 392면.

3) 『송막연운록』은 1937년 10월 28일부터 1938년 4월 1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된 기행문이다. 여기서 송(松)은 만주, 막(漠)은 몽골, 연(燕)은 북경, 운(云)은 산서(山西)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최남선이 1937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성에서 출발해 용정, 연길, 훈춘, 동경성, 목단강, 하얼빈, 신경, 길림, 봉천을 경유해 다롄으로 행해가는 기차 안까지의 일정을 기록하고 있다.(윤영실, 『해제』, 『송막연운록』, 경인문화사, 2013, 477면.)

후자의 경우는 서영채, 조현설, 전성곤 등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정준영의 연구는 최남선이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과 만주국 건국대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⁴⁾ 강해수는 ‘도의국가로서의 만주국과 건국대학이라는 관계 속에서 건국대학의 사쿠다 소이치(作田莊一),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최남선을 중심으로 한 ‘도의국가’ 담론이 만주국 건국이데올로기 창출의 일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한편 만주국 이데올로기의 수용 여부와 관련된 연구들은 『불함문화론』을 비롯한 앞서의 논의들과의 연속성 속에서 『만몽문화』를 고찰하면서 최남선의 사상적 이력을 추적하는 작업으로 집약되었다. 곽은희는 『만몽문화』와 『만주 건국의 역사적 유래』를 대상으로 최남선이 ‘민족과 ‘전통’의 창출을 통해 만주국의 기원을 만들어 냈고 이는 곧 일본 제국의 확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고 비판하였다.⁵⁾ 전성곤은 최남선이 중요하게 강조하였던 것은 단군론이었고 이러한 논의는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조선의 단군을 주창하는 민족주의적인 문화 창출의 논리가 모순되면서도 공존하는 형국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⁶⁾ 강해수는 『만몽문화』는 『불함문화론』의 논지가 확대 적용된 텍스트임과 동시에 만주국 성립의 당위성을 부여하려 했던 텍스트로서 궁극적으로는 만몽지역을 학문적으로 전유했던 제국주의적 담론의 일환이었다고 결론짓는다.⁷⁾ 한편 조현설 역시 강해수와 마찬가지로 최남선의 『만몽문화』는 『불함문화론』의 연장선에 있는 텍스트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제국주의 담

4) 정준영,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실험과 욕망 최남선』, 『사회와 역사』110, 한국사회사학회, 2016.

5) 곽은희, 『만몽문화(滿蒙文化)의 친일적 해석과 제국 국민의 창출: 최남선의 『滿蒙文化』와 『滿洲 建國의 歷史的 由來』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6) 전성곤, 『“五族協和”와 “民族이데올로기” 사이에서: 滿洲 『建國大學』과 崔南善의 『滿蒙論』을 중심으로』, 『만주연구』4, 만주학회, 2006.

7) 강해수,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역사비평』76, 역사비평사, 2005.

론의 자장 안에 함몰된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 담론과 제국주의 담론이 일체가 되는 듯하면서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형국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⁸⁾ 서영채 역시 『만몽문화』는 『불함문화론』의 진리임을 인정하지만 최남선에게 있어서 『만몽문화』는 하나의 막다른 골목이었음을 지적한다. 『만몽문화』는 역사학을 넘어 인류학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인류학으로 나아감은 곧 민족을 넘어서고 단군을 포기하는 길임을 확인하는 계기였음을 지적한다.⁹⁾ 이상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몽문화』는 『불함문화론』의 정수이자 핵심이었고 그 연장이었다는 점에는 합일점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만몽문화』가 보여주는 최남선의 사상적 지향점 또는 그의 사상의 내밀한 변화였고 그것을 민족주의 담론이나 제국주의 담론 속에 결박하고자 한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최남선의 사상 이력을 추적하느라 『만몽문화』가 만주국 건국대학의 강의록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내세우지 못한 점이 아쉽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만몽문화』가 만주 건국대학에서의 강의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건국대학의 맥락에서 『만몽문화』가 놓인 자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만몽문화』가 강조하고 있는 '신화'라는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건국신화'와 연결되는지를 텍스트 내외적인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신화'의 강조가 사실은 당시 만주국 정부의 신도(神道)의 선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던 만주국의 기원 만들기로서의 '건국신화' 창출의 한 과정과 맞닿아 있었음을 밝혀내고 나아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주시절의 최남선의 사유의 일단에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8) 조현설, 『민족과 제국의 동거: 최남선의 만몽문화론 읽기』, 『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9) 서영채, 『단군과 만주, 아침의 영웅주의: 최남선의 『자열서』 읽기』, 『한국현대문학연구』32, 한국현대문학회, 2010.

2. 만주 건국대학교 『만몽문화』

1938년 5월 2일 정식 개교한 만주 건국대학교는 만주국의 엘리트 양성을 위한 “최고 학부”였고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건설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이기도 했다. 건국대학교는 文敎部 소관이 아닌 만주국 국무총리대신 직속 관할의 국무원 소속이었으며 “건국대학령”에는 “건국대학교는 건국정신의 神髓를 체득하고 학문의 깊이를 탐구하며 실천 공행하여 道義世界 건설을 위한 선각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건국대학교는 만주국의 건국정신과 만주국이 지향하는 “도의세계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에 핵심을 두고 있었다.

만주국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건국대학교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의 민족구성이 의도적으로 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는 “오족협화”라는 만주국 이념에 걸맞게 한인(漢人), 만주인(滿洲人), 몽골인(蒙古人), 조선인(朝鮮人), 일본인(日本人), 러시아인을 비롯한 7개의 민족을 입학시켰고, 이 7개의 민족은 다시 “大陸系”라 불리는 만계(滿系: 漢, 滿, 蒙, 回, 俄)와 “海洋系”라 불리는 일계(日系: 日, 朝, 타이완)로 구분되었다.¹¹⁾

만주국은 다민족으로 구성되다보니 사용되는 언어 또한 다양했다. 이것이 만주국의 독특함이기도 했지만 통치자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큰 난제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만주국은 비록 일본어와 중국어, 두 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규정했지만 절대 대부분의 인구가 중국어를 사용했던지라 만주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통치언어인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만주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국대학교는 어학교육을 특별히 중시하였는데 교과과정에서 어학강의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편성된

10) 姜念東 외 4명, 『偽滿洲國史』, 吉林人民出版社, 1988, 457면.

11) 劉第謙, 『附錄』, 水口春喜, 董炳月 옮김, 『“建國大學”의 幻影』, 北京: 崑崙出版社, 2004, 159면.

것에서 드러난다.

건국대학의 학제는 6년이었고, 6년은 다시 전기(예과) 3년과 후기(본과) 3년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1940년 학제 개편 이후 대부분 대학의 수학기간이 2~3년으로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 것이다. 전기는 주로 기초지식과 정신훈련을 위주로 편성되었고 후기는 전공에 중점을 둔 교과 편성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전기의 핵심은 '훈련'과 '문화' 관련 과목들이었고¹²⁾ 후기는 전공별로 분류되었는데 공통으로 '훈련' 과목과 '기초공통'이 있었다. 이외 공통 교양으로는 "철학", "지리학", "사학", "국학", "문학", "무학(武學)" 외에 특별히 "건국정신", "神道와 皇道", "유교(儒敎)", "종교개론", "공무원(公務論)" 등을 함께 가르쳤다.

이와 같은 편성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어학 과목의 수강 시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수강 시수(각주14 참조)에서 보듯이 어학 수업은 총 1460 시수로서 전체 수업의 40%에 육박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훈련 과목이 33%에 달하고 있다. 이는 건국대학교의 학생 구성원이 다민족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던 만주국에서 일본어 사용 인구나 중국어 사용 인구 사이의 현격한 차이에서 초래되는 또 다른 필연이기도 했다. 실기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일반적인 대학과는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러한 교과 편제는 만주 건국대학이 추구했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일반적인 대학과 달랐던 건국대학의 교과과정은 만주국이 실용적인 인

12) 훈련은 "정신훈련(80시수)", "군사훈련(430시수)", "武道(유도, 검도)(260시수)", "농사(230시수)", "정신 강화(精神 講誼 95시수)"로 구성된 총 1195시수를 이수해야 했다. '문화' 수업은 수학(365시수), 인문과학(정치, 경제, 철학개론, 심리, 윤리 등 120시수), 역사(서양사, 동양사, 일본사, 만주국사, 330시수), 지리(220시수), 일본어(300시수), 중국어(漢語, 330시수), 제1언어(日系는 漢文을, 滿系는 일본어를 수강, 535시수), 제2언어(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몽고어 중 택일, 2학년부터 수강 가능, 295시수)로 구성되었으며 총 2465시수를 이수해야 했다.(위의 책, 168-171면.)

재 양성에 핵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실기와 어학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과정과 함께 또 하나 건국대학의 특색 중의 하나는 숙(塾)¹³⁾ 제도였다. 일명 ‘숙생활(塾生活)’ 혹은 ‘숙교육(塾教育)’이라고 칭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기숙사 제도였다. 건국대학의 학생들은 전원 모두 숙(塾)에서 생활해야 했는데, 이 기숙사에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사생들의 하루 일과는 단체 생활로 시작되어 단체생활로 마감되었는데 특히 거추장스러운 의례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대생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 5시 30분(동절기 6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기상, 세면을 마치면 그날의 당직(대부분이 塾頭)을 따라 운동장에 모여 국기를 계양하고, 국기에 경례하고 일본 천황과 만주국 황제 푸이가 있는 방향을 향해 요배를 했다. 요배가 끝나면 국민체조를 했고 체조가 끝나고는 다시 당직의 인도 하에 뛰어서 숙으로 돌아와 각자의 침대에 앉아 정좌(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했다. 정좌하여 “민족협화, 왕도낙토”를 복창하였고 이어 묵념의 순서를 가졌다. 숙두에 의해 그날 일정이 발표되고 교실로 돌아가 아침 식사 시간인 7시 전까지 자습시간을 가진다. 밥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이 대부분의 식사였는데 아침에는 주로 옥수수죽이 제공되었고 점심에는 쌀밥이 제공되었다. 저녁에는 대체로 입쌀에 수수를 섞거나 콩을 섞은 수수밥이나 콩밥이었는데 일제에게는 흰 쌀밥이 제공되었다.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 전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찬양하는 구호를 불렀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해야 했다. 저녁 식후부터 소등 전까지가 자유 시간이었는데 이 시

13) 塾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구조와 식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2학년이 하나의 단층집 전체를 사용했는데, 단층집의 한쪽은 침실이었고 학생들은 일본어 히라가나 순서에 따라 침대 자리를 배정받았다. 특이한 점이라면 침실 입구에는 2열로 된 38식 보충 거치대가 설치되어있었다는 점이다. 건물의 다른 한쪽은 자습실이었고 자습실에는 책상과 탁상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밝고 넓었다. 중간의 복도는 종횡으로 십자를 이루고 있었고 네 귀퉁이의 공간들은 각각 사감실(塾頭室), 세면실, 화장실,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塾頭는 대부분 고학년의 학생이 맡았다.(위의 글, 164면.)

간 역시 진정한 자유시간과 저녁자습시간으로 구분되었다. 저녁자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아와 각자의 침대에서 다시 정좌하고 숙주의 훈화를 듣고 눈을 감고 스스로의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다음 날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반성의 시간이 끝나면 정각 9시 30분에 취침 북소리가 울렸다. 아침에 일찍 기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정시에 취침해야 했다.¹⁴⁾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해야 했으며 일체의 생활은 반드시 일본식을 따라야 했고 일상 대화도 반드시 일본어만을 사용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만주국 “최고 학부”의 맨얼굴이었고 이로부터 그들이 희망하는 진정한 엘리트의 한 형상을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숙생활”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왜냐하면 숙생활 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국대학에는 일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다. 중간시험도 기말고사도 없었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숙생활 평가였다. 오창록¹⁵⁾의 증언에 따르면 숙생활 평가는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유의 토론은 매일 저녁 진행되었다고 한다.¹⁶⁾ 그리고 그 평가라는 것은 지극히 사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생활을 일본화 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생활을 하면

14) 위의 글, 176-177면 요약.

15) 오창록은 건국대학 제2기생 중 10명의 조선인 학생 중 한 명으로서 1921년 6월 4일 경상북도 상주군 외서면에서 태어났다. 1939년 건국대학에 입학한 10명의 조선인 학생 중 5명이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서 모두 오창록의 동창들이었다. 졸업 후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사할린으로 파견되었고 사할린에서 정전을 맞이한 채 귀환하지 못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자세한 이력은 마에카와 게이지(前川惠司)의 『歸郷：滿州建國大學朝鮮人學徒青春と戰爭』(三一書房, 2008)을 참조.

16) 오창록의 증언에 따르면 건국대학은 기말시험도 없고 성적표도 없었다. 평가를 대신하는 것은 숙에서의 토론이었는데, 그런 유의 토론이 매일 저녁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창록은 건국대학을 일컬어 “웃기는 학교”였다고 추억하고 있다.(위의 책, 23면.)

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했다. 훈련 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단축되기는 했다.

숙제도 속에서 학생들은 철저히 감시, 훈련, 교육되었으며 여기에 사상적인 주입이 더해졌는데 이러한 교육 이념과 방침을 연구하고 고안해 내는 부서가 바로 건국대학연구원이었다. 연구원은 건국대학의 교수, 부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대동학원¹⁷⁾, 협회 등 기관의 일부 주요 구성원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연구원은 “건국정신의 실현”이라는 구호 아래 “만주 민족 연구”, “만주 국책”, “신도”, “건국정신”, “일만합병의 길” 등을 연구과제로 삼았다. 연구원의 핵심은 “건국원리, 국민사상, 국가정책 등을 연구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결속을 핵심으로 하는 건학 방안을 고안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연구원은 ‘기초연구부(基礎研究部)’, ‘문교연구부(文教研究部)’, ‘법정연구부(法政研究部)’, ‘경제연구부(經濟研究部)’, ‘종합연구부(綜合研究部)’로 구성되었으며 교수 인원은 1941년 66명에서 1942년 128명으로 급증하기도 하였다.¹⁸⁾ 연구원의 기본 역할은 ‘왕도정치’, ‘민족협화’, ‘도의세계’를 기본 틀로 하는 국가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만주국과 일본은 하나라는 동원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¹⁹⁾ 연구원은 말 그대로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와 제도 및 방침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그 기원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기관이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만주국학’ 건설의 일환으로서 건국대학에서 수행된 ‘역사 만들기’로서의 만주사 연구 작업이 그

17) 대동학원(大同學院)은 관리(官吏) 양성 기관으로서 그 전신은 1932년 관동군에 의해 설립된 자정국훈련소(資政局訓練所)이다. 처음에는 일본인들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1934년부터 중국인들도 받아들였다. 수강 과목으로는 “정신강화”, “정신훈련”, “국책”, “만주문화사”, “만주국 국방 및 군정, 민정, 재정, 사법, 실업” 등이 있었고 1938년에 다시 확장되면서 만주국 고등관 훈련소로 거듭났다. 이와 동시에 “건국론(建國論)”, “관리도(官吏道)”, “통치기구론”, “민족론”, “국제정황” 등 과목을 새롭게 개설하였다.(姜念東, 앞의 책, 457-458면.)

18) 劉第謙, 앞의 글, 158-159면.

19) 전성곤, 앞의 글, 90면.

하나이다.²⁰⁾

최남선은 '문교연구부'의 '역사연구반'과 '문화연구반'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1940년 8월 17일 처음으로 문교과 교수의 자격으로 후기 수업반회의에 참여했으며, 8월 24일에 "만몽문화" 과목의 강의 담당자로 지정되었다.²¹⁾ 문교학과의 과목 구성은 "일반 과목", "국민문화론", "국민교육론", "국민교회론", "세계문교론", "보충 과목"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만몽문화"는 "국민문화론교육"의 한 과목이었다. 최남선이 담당했던 과목 "만몽문화"는 문화적으로 만주국과 일본의 동원론을 고찰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최남선은 어떤 논리와 경로를 거쳐 그 동원론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건국신화' 만들기와 기원의 창출

최남선의 "만몽문화학" 강의는 1941년 2월 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총 1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단행본으로 발간된 『만몽문화』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장에서는 '만주', '몽고' 등에 대한 명칭 고찰을 통해 몽고의 지리적·역사적 분포와 민족적 분포를 살피고 나아가 '문화'라는 키워드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국가 만주국이 '만몽문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문화적 사명을 옛 전통에서 돌이켜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장에서는 만몽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북방문화권의 형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3장에서는 만몽지역의 고유 신앙인 샤먼에 대해 통찰하고 샤먼교를 '고신도(古神道)'라고 칭할 것을 제의하면서 고신도와 일본 신도의 놀라운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4장에서는 신화에 대한 통

20) 정상우, 『식민주의 역사학으로서 만주건국대학에서의 역사 연구』, 『동북아역사논총』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21) 정준영, 앞의 글, 336면.

찰, 특히 건국신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만몽과 일본의 동원성을 밝혀내고 만주국 건국정신의 체득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언급한다. 5장에서는 새외 민족이 중국의 중원 문화에 미친 능동적인 영향과 중원에서 새외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경향, 즉 문화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6장에서는 변발과 온돌 문화를 예로 들어 북방문화권의 유사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문화권과 문화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것은 조선적인 요소, 그중에서도 부여국의 신화와 부여국의 문화적인 우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만몽문화』를 접한 독자라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몽문화』의 경우는 3장과 4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장의 샤면에 관한 논의는 인상적이면서 의아한 느낌을 준다. 인상적인 부분은 샤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이고 의아한 부분은 샤면을 고신도로 칭하면서 일본의 신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지점이다. 최남선이 보기에 샤면교는 만몽을 중심으로 옛날부터 대륙의 한편에 뿌리를 뺀고 숲을 이룬 일대 신앙으로서 그 환경에서 배양되고 그 역사에서 커지면서 민족 생활을 지켜온 정신적 지주였고 동북 대륙의 민중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개현한, 이론보다 사실, 사색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종교였다. 때문에 민족과 더불어 존재하고 역사와 함께 진행되는 자연의 대도(大道)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의미에서 고신도(古神道)라고 고쳐 불러야 함을 제안하면서 대륙의 역사에서 신도 본연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어 그는 만몽 지역 고대 중국의 문헌에 나타난 만몽 계통 제민족의 신앙 문화에 관해서 개관을 시도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민속적 잔재가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그 실체와 분류마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견지에서 만몽 계통의 역사적 종교를 가볍게 샤머니즘이라고 처리해 버리는 것을 피하고 단적으로 대륙 신도란 이름을 내걸고자 하는 것이다. 대륙의 생활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대륙 생활의 경험 누적에 의해서 저절로 발전하여 천리에 따르며 신의 뜻을 받드는 것을 본지로 하는 신앙 그 자체가 신도였다.

만약 이 대륙의 신도를 일본의 신도와 대조하여 생각할 때 신조나 행사 또는 표현의 어형 등에 너무나도 이상한 일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크게 주의를 요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결함을 숭상하는 것, 말 많은 것을 싫어하고 밝은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 일본의 신도에 있어서의 태고(太古), 주련(注連), 신리(神理), 반경(盤境) 등이 그대로 대륙 각지에서 보인다는 것, 몽고의 '오보', 조선의 '업(業)', 일본의 '우부스나(産土)'가 의미와 어형이 일치한다. 조선의 '탈'과 일본의 '다다리(崇)', 조선의 '풀이'와 일본의 '하라이' 등이 내용이나 말도 동일하다는 것 등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은데 이것들은 장래의 연구로 돌리기로 한다.²²⁾

인용한 부분은 사면을 '대륙 신도'라 칭하고, '대륙 신도'와 '일본 신도'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여러 지역의 사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다다른 결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륙 신도'로 불려야 한다는 논거로 열거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기서 최남선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천리에 따르며 신의 뜻을 받드는 것을 본지로 하는 신앙 자체”로서의 사면(신도)의 특징이며, 이런 측면에서 자연의 대도(大道)로서의 샤머니즘은 “경박하게 샤머니즘이라고 불려 버릴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고신도(古神道)로서 크게 고쳐보아야”²³⁾ 한다는 주장이었다.

최남선이 처음으로 신도론을 공식화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3월 경성 중앙방송에서 행한 『신도(神道)의 추상(追想)』이라는 제목의 전국중계 라디오 강연에서였다. 이 강연에서 최남선은 고대 동북아 공통신앙을 '신의

22) 최남선, 전성곤 옮김, 『만몽문화』, 경인문화사, 2013, 112-113면.

23) 『만몽문화』, 95-96면.

도' 즉 '신도'로 명명하고 있다.²⁴⁾ 말하자면 샤머니즘은 고대 동북아 공통 신앙이라는 점에서 '신도'인 것이다. 하지만 『만몽문화』에서 최남선은 샤머니즘을 고신도라 칭할 것을 제안하는데, '고신도' 역시 '신도'와 마찬가지로 『만몽문화』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최남선의 고신도 개념은 『시대일보』에 1925년 3월부터 5월까지 게재된 「신춘춘례」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고신도는 조선의 불교, 고불교, '조선 古敎'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 『백두산근참기』에 오면 몽골, 만주, 조선, 일본, 오키나와 등을 불함문화권이라는 '동일 문화권'으로 규정하면서 고신도는 태양을 숭배하던 오랜 과거부터 지속된 것이며 불교와 도교에 남아있고 백두산과 지리산 등의 공간에도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최남선이 강조했던 것은 불교와 유교 수용 이전의 종교의 조선적인 요소였다.²⁵⁾ 즉 고신도로서의 샤머니즘을 상징하였을 때 최남선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조선적인 요소였고 그것이 곧 부여국의 존재였던 것이다.

부여국에 대한 역사적인 소개는 4장에서 계속 이어진다. 부여국은 만주 평야 지대의 최고 문명국이었고 새외 민족의 고대 신화로써 가장 일찍이 알려진 것도 부여의 건국 이야기였음이 강조된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국신화를 고찰하는 4장에서 최남선이 얻어낸 만몽 지역 건국신화의 공통점은 제천(祭天) 행사였는데 이는 곧 배일(拜日), 태양 숭배라는 점에서 단군신화와 연관되고 있었다. 그는 이로부터 단군신화를 불러오고 이것을 동방의 신성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하늘 숭배 사상을 태양의 '기'와 연결시켜 해석함과 동시에 부여의 건국 신화를 시작으로 이러한 인식이 고구려, 일본으로 전해졌음을 예시하고 있다.

24) 이에 대해서는 윤영실, 앞의 책, 411-413면 참조.

25) 고신도에 대한 부분은 류시현, 「1920-30년대 최남선의 고신도 논의와 '불함문화론'의 재해석」, 『역사학연구』76, 호남사학회, 2019, 102-103면 참조.

중국 방면뿐만 아니라 일본에 이주한 부여 계통 백제 왕족이 전하는 원조 설화에도 태양의 정기에 감응되어 왕족이 태어난 유래를 전하고 있다. 『續日本書記』 연력8년 황태후 고닌(光人:709-782) 천황의 부인이며 간무(桓武) 천황의 어머니인 다카노노 니이가사(高野新笠)의 홍거(薨去) 기사에 “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려왕의 아들인 순타태자(純陀太子)에서 나왔다. 그 백제의 먼 조상인 도모왕(都慕王)은 하백의 딸이 해의 정기에 감응하여 태어났는데, 황태후는 곧 그의 후손이다”라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시호(諡號)를 ‘아메타카시루히노코히메노미코요(天高之日之子姬尊)’라 칭하였다.²⁶⁾

태양의 정기를 바탕으로 하는 이와 같은 신화소들이 조선, 중국, 일본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 기원은 부여 계통의 백제였음을 실질적인 고서에서 찾아내고 있다. 즉 만주, 중국, 조선, 일본은 모두 태양숭배 사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그 기원은 만주의 부여 땅에 있었고 일본의 사상은 조선에서 전해진, 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卵생 신화’, ‘狼종 설화’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성립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북방의 ‘난생 설화’에서는 태양의 기운이 알 모양을 취하고 있고, 태양의 아들도 알로 잉태되기 때문에 알은 그야말로 태양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낭종 설화’에서 이리에 대한 숭배는 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서도 확인 가능한 항목임을 천명하면서 이 역시도 태양 신화의 한 요소일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기원을 만주에서 찾고 있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동원론은 이미 『불함문화론』에서 선보인바 있는 익숙한 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기존의 불함문화론의 핵심은 불함문화권의 중심을 조선에 두었다면 『만몽문화』에서는 동북아 문화의 발상지를 부여국에 두었다는 점이다. 불함문화론의 근거가 붉사상이었다면 만

26) 『만몽문화』, 124면.

몽문화론의 근거는 태양숭배로 표방되는 변형된 단군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만몽문화』는 기존의 최남선의 불함문화론과 단군론의 정수이며 기존 논리의 변형된 반복인 셈이다. 다시 최남선의 신도론을 언급하자면, 사실 최남선이 신도론을 제기한 것은 단군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신도의 틀 안에서 내선일체를 꿈꾸었던 최남선의 실패 전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⁷⁾ 그러나 『만몽문화』의 경우는 그 내적인 논리도 존재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대적인 외적 환경의 영향도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주국의 건국 초기의 이념은 “왕도낙토”, “오족협화”, “팔굉일우”, “도의세계 건설” 등이었는데 1940년을 전후하여 만주국은 “유신지도(唯神之道)”로 건국정신을 다시 확정하게 된다. 만주국 건국 초기의 “왕도” 제창은 황제 푸이(溥儀)의 일본천황 방문을 계기로 “황도”로 바뀌게 되며 이와 같은 “황도”는 다시 “신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1940년에 들어서면 만주국에서는 건국신묘(建國神廟)를 건축하고 일본으로부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셔와 건국신(建國神)으로 모시면서 만주의 역사는 청태조나 만주족의 신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만주국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건국신으로 모시는 행사는 아주 거창하게 행해졌다. 1940년 6월 22일 만주국 황제 푸이는 일본 기원2600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193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고 7월 10일 귀국할 때에는 일본 국신(國神)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대표하는 세 가지 신물(神物)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7월 15일 일본관동군을 비롯한 만주국 요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국신묘 진좌제(建國神廟鎮坐祭)”를 지내고 국본전정조서(國本奠定詔書)를 발표하여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건국원신(建國原神)”으로 함을 선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

27) 윤영실, 『단군과 신도: 1930년대 중반 최남선의 단군 신앙 부흥론과 심전개발』, 『한국현대문학연구』36, 한국현대문학회, 2012.

국종교단체를 비롯한 국내의 사원 등 여러 단체에서 참배하게 하였으며 “건국신묘, 건국총령묘제사령(建國神廟, 建國忠靈廟祭司令)”을 반포하여 만주국 각 지역에서 신묘를 건축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신도천황(神道天皇)”을 신봉할 것을 명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인들은 매일 일본 동경의 천황이 있는 방향과 신경 만주국 황궁의 방향을 향하여 90도의 경례를 하게 되었으며 일본 관리들은 매일같이 신묘에도 예를 행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경죄”라는 죄목을 씌워 1~7년의 실형을 살게도 하였다. 실제로 1941년 테링(鐵嶺)시의 시장(市長)인 쉰쨈엔지유(徐漸九)는 “유신지도(唯神之道)”란 도대체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장씨 집안의 조상을 이씨 집안에 옮겨다 놓고 모시는 것”이라고 답해서 “대불경죄”를 지었다하여 7년의 징역을 살게 된 일도 있었다.²⁸⁾ 이처럼 만주국의 건국신을 모시는 일,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강요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행해졌고 실제로 법적 처벌을 통해 그 강제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따라서 만주건국대학에서 만주국의 건국신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만주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상당히 필요한 주입식 교육의 일환이기도 했다. 최남선의 만몽문화 강의가 놓여 있는 자리는 이러한 맥락인 것이었다.

다시 최남선의 논의로 돌아가면 『만몽문화』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새로운 건국신으로 만들어 모셔야 하는 새로운 근거 찾기의 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일본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만주국의 기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원으로서 조명된 것이 부여국 신화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만몽문화』는 만주국의 정체성과 오족협화의 논리 속에서 조선인의 존재를 부각시킨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루한 문제는 “國史”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만주국은 “서양사”, “동양사”, “일본사”

28) 劉春英·吳佩軍·馮雅 編, 『偽滿洲國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 偽滿洲國文藝大事迹(上)』, 劉曉麗 主編, 北方文藝出版社, 2017, 227면.

와 함께 “국사”(만주국사)를 강의하였는데 “국사”에서의 시원을 숙신이라 하여 많은 학생들의 반발을 자아냈다.²⁹⁾ 이처럼 『만몽문화』는 만주국의 기원인 ‘건국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강조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뻔한 『만몽문화』의 이러한 논리적인 비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지속적인 조선의 강조와 억지스러운 연결 지점들, 이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데, 최남선은 왜 이런 뻔한 논리를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설명했던 것일까? 만주시절 최남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생활을 하였던 것인가? 만주건국대생들의 회고담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었다.

4. 만주시절의 최남선과 협화의 논리

최남선이 만주 건국대학에 부임한 일지는 1938년 4월 30일자였고 건국대학을 사관(辭官)한 공식 일지는 1943년 2월 12일자로 기록되어 있다.³⁰⁾ 만주시절 최남선에 대해서는 『만선일보』의 고문으로 있었고 건국대학에서 “만몽문화” 강의를 하였다는 것 외에 기타 그의 만주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안수길의 『용정·신경 시대』에서 『만선일보』 고문시절의 최남선이 만선일보사에 나타나서 문단 이야기를 중황하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특히 건국대학에서의 최남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게다가 최남선의 만주시절의 글³¹⁾

29) 이 부분은 당시 건국대학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회고록에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水口春喜, 앞의 책.)

30) 최남선의 손자 최학주의 기술에 따르면 최남선이 서울로 돌아온 것은 1941년 말이었고, 이듬해 1942년에 정식으로 건국대학 교수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다.(최학주, 『나의 할아버지 육당 최남선』, 나남, 2011, 226면.) 사실자료들과 대조해 볼 때 최학주의 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들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국대학에서의 최남선의 삶을 살펴볼 만한 자료가 소략한 편이었는데 건국대생들의 회고록을 비롯한 일련의 도서들이 출판되면서, 특히 건국대 조선인 학생들의 회고록에서 최남선의 과거를 조금이나마 복원할 수 있었다.

마에카와 게이지(前川惠司)의 『歸郷：滿州建國大學朝鮮人學徒青春と戰爭』(三一書房, 2008)은 만주건국대학 출신의 조선인 학도병 오창록(吳昌祿)이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사할린에서 해방을 맞고 그대로 귀국하지 못하고 반세기가 넘어서야 고향으로 귀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실기이다. 이 책에 소개된 만주건국대학 조선인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최남선의 건국대시절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건국대학 3기 출신인 강영훈(姜英熏)은 해방 후 육군사관학교 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2기생인 오창록은 그와 동기생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1944년 1월 2일 같은 날 학도병으로 출정하였다. 강영훈은 오창록의 동기생인 홍춘식(洪椿植)과 함께 같은 곳에 배치되었고 강영훈은 만주에서 갑종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본토 방위에 동원되어 센타이(仙台)의 예비사관학교로 갔다가 패전 한 달 전인 1945년 7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들은 소위(少尉) 계급으로 아키타(秋田)연대에 배치되었고 아키타현의 육군연습장에서 종전을 맞았다. 이 연대에는 약 600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소위 계급을 가진 이는 강영훈과 홍춘식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조선인뿐이었다. 이들 세 사람은 각자 200명의 조선인 병사들을 인도하여 귀국하라는 명을 받는다.³¹⁾ 이에 비해 오창록의 경우

31) 최남선의 만주시절 발표된 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만주 풍경」(『매일신보』, 1938.10.4), 「건국대학과 조선청년」(『삼천리』10권10호, 1938.10), 「露西亞의 동방 침략」(『매일신보』, 1938.11.2), 「露國 東援年代記」(『매일신보』, 1939.1.1~19), 「만주의 명칭」(『만선일보』, 1939.3.6), 「蒙古天子」(『만선일보』, 1939), 「만몽문화」, 「만주 건국의 역사적 유래」(『신시대』제3권제3호, 1943.3), 그리고 『半島史話와 樂土滿洲』(滿鮮學海社, 1942)에 실은 「만주 역사」, 「蒙古의 명칭」과 「만주조선문예선」(朝鮮文學社, 1941)에 실은 「讀書」, 「百爵齊半日」, 「千山遊記 其一」, 「千山遊記 其二」, 「事變과 教育」 등이 있다.

는 1944년 1월부터 만주, 러허성(熱河省)에서 초년병 교육을 받았고 같은 해 초봄 관동군 대이동과 함께 조선의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후쿠오카 하카타(博多), 다시 오타루(小樽)에서 사할린으로 이동했다. 홋카이도에서 갑종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였고 사할린으로 파견되었으며 학도병 신분으로 가미시스카(上敷香)에서 간부후보생 훈련을 마쳤다. 홋카이도의 예비사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부상을 입어 사할린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듬해 봄에 퇴원하지만 복귀하지 못하고, 3월 27일 군조(軍曹)의 직함으로 현지 주둔군 제88사단에 배치된다.³³⁾ 전후에는 사할린에 억류된 채 귀환하지 못했던 것이다.

건대시절 오창록이나 강영훈 등은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최남선의 관사에서 지냈다고 증언한다. 그 시절 최남선은 교단에는 서지 않았지만 그의 관사는 조선반도출신 건국대생들이 모여드는 살롱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거기서 저녁을 먹고서야 헤어졌는데 술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창록의 술회에 따르면 “술을 먹고 고성방가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³⁴⁾ 그 시절의 최남선에 대한 일화가 몇몇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영훈의 술회에 따르면 최남선은 당시 그의 사택을 방문한 조선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고 한다.

일본의 내선일체라고 하는 식민지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동조동근이라든가 하는 것은 엉터리일 뿐이고 우리가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당치도 않은 일이다. 군들은 조선인이고, 앞으로 앞서지든 뒤로 넘어지든, 어디로 보나 조선인이다. 4천년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의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32) 마에카와 케이지, 앞의 책, 141면.

33) 위의 책, 38면.

34) 위의 책, 177-178면.

최남선 선생은 항상 힘주어 말씀하셨다.

....(중략)....

선생은 현실주의자였다. 독립이 실현되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현재는 묵묵히 스스로의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셨다. 동시에 **민족협화와 동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 협화는 각각의 민족이 각자의 실력이나 문화를 발휘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과 우리의 협화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다.³⁵⁾(강조-인용자)

위의 내용은 만주건국대학 동창회 참여 차 일본을 방문했던 강영훈을 마에카와 게이지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인터뷰 시점이 만주건국대학을 졸업한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다는 점, 한국은 이미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났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한 뒤의 사후적인 술회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강영훈이나 오창록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표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내용의 핵심은 분명하다고 본다. 『만몽문화』의 맥락에서 보면 위에서의 최남선의 발언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학도병 동원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근접하는 내용들이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부분은 최남선이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던 발언에서 “오족협화”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상황인 조선에서 낼 수 없었던 목소리를 오족협화를 기조로 하는 만주국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내선일체와 오족협화의 차이, 그것이 바로 최남선의 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하고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 최남선의 논리였다. 최남선의 관사는 ‘조선인 살롱’으로 전략하게 되고 『만

35) 위의 책, 178면.

몽문화』 강의가 문제가 되어 결국 최남선은 건국대학을 떠났다고 강영훈, 오창록 두 사람은 술회하고 있지만 건국대학을 떠난 이유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최남선의 행보를 두고 일견에서는 이중성이라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사실 ‘조선’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남선의 논리를 이중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선일체에서 민족협화로의 전이는 식민 지배의 권력 구조 속에서 조금 더 대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쪽으로서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조선민족의 존재를 좀 더 뚜렷하게 강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구조, 그런 공간이 바로 만주였다. 『만몽문화』가 강조하는 조선문화의 우수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의 실패 즉 최남선의 건국대학에서의 퇴출은 “오족협화”의 허위성, 만주는 조선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5. 결론

최남선이 만주 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한 것은 1938년 4월 30일이었다. 그가 건국대학에서 맡았던 강의는 “만몽문화”였고 『만몽문화』는 그때의 강의록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글은 강의록 『만몽문화』를 만주국적인 맥락에서 읽기를 시도한 글이다. 만주 건국대학은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선양하고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학부였고 건국대학 소속의 건국대학연구원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와 제도 및 방침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이었다. 건국대학연구원 소속이었던 최남선 역시 이러한 자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만몽문화” 강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주 건국대학은 건학 취지에 맞추어 건국대학만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그 특징 중의 하나가 여학교육과 실기에 대한 강조였고 무엇보다도

속제도를 통한 정신교육이 강조되었던 점이다. 한편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樂土)”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만주국은 1935년 푸이(溥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황도정치(皇道政治)”를 제창하게 되고 식민지 말기에 이르면 “신도(神道)”의 강조와 함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건국신으로 신봉하기에 이른다. 만주국은 새로운 기원의 창출이 필요했고 최남선의 『만몽문화』는 이와 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배태된 것이다. 만주와 몽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맥락을 조망하고 있는 『만몽문화』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만주의 문화적 동원성을 논증하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최남선의 『만몽문화』는 일본과 만주의 동원성을 부여라는 조선적인 것에서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만주국의 건국신이라는 결말과 연결시킨다.

최남선의 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불함문화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았고 신도의 틀 안에서 내선일체를 꿈꾸었던 신도론의 논리를 재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다. 사실 식민지시기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를 다르게 인식하고 만주를 하나의 희망의 공간으로 상정하여 최남선과 같은 행보를 보였던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최남선이 만주 건국대학을 사임하게 되듯이, 이와 같은 결과는 궁극적으로 오족협화의 허위성, 즉 만주는 또 하나의 식민지에 불과하였음을 확인하는 지점이 되고 말았다. 『만몽문화』가 보여주는 것은 조선과 만주라는 특수한 식민지시기를 살아갔던 최남선을 비롯한 조선지식인들의 외부 압력에 의한 시대적인 협력과 그것에 대한 내적인 대응과 고민의 흔적들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10, 현암사, 1974.
최남선, 전성곤 옮김, 『불함문화론·살만교차기』, 경인문화사, 2013.
최남선, 전성곤 옮김, 『만몽문화』, 경인문화사, 2013.
최남선, 윤영실 옮김, 『송막연운록』, 경인문화사, 2013.

2. 단행본

- 윤영실,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아연출판부, 2018.
전성곤, 『육당 한국학을 찾아서』, 동서문화사, 2016.
水口春喜 저, 董炳月 옮김, 『“建國大學”의 幻影』, 北京: 昆崙出版社, 2004.
姜念東 外 4名, 『僞滿洲國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8.
許雪熙 外 5名, 『日治時期臺灣人在滿洲的生活經驗』, 臺灣: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2015.

3. 논문

- 강해수,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역사비평』32, 역사비평사, 2006.
_____, 「도의국가(道義國家)로서의 만주국과 건국대학: 사쿠다 소이치(作田莊一),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공간』20,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곽은희, 「만몽문화(滿蒙文化)의 친일적 해석과 제국 국민의 창출: 최남선의 『滿蒙文化』와 『만주 건국의 역사적 유래』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류시현, 「1920-30년대 최남선의 고신도 논의와 ‘불함문화론’의 재해석」, 『역사학연구』76, 호남사학회, 2019.
박은숙, 「“滿洲國” 建國精神과 육당의 不咸文化論」, 『동악어문학』51, 동악어문학회, 2008.
서영채, 「기원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 최남선의 『백두산 근참기』」, 『한국근대문학연구』6, 한국근대문학회, 2005.
_____, 「단군과 만주, 아침의 영웅주의: 최남선의 『자열서』 읽기」, 『한국현대문학연구』32, 한국현대문학회, 2010.

- 심희찬, 『일본 비틀기: 최남선과 일본의 역사학』, 『사이間SAI』2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 오문석, 『민족문화와 친일문학 사이의 내재적 연속성 문제 연구: 최남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30,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6.
- 이정희, 『만주 건국대학의 교육과 조선인 학생』, 『만주연구』22, 만주학회, 2016.
- 정상우, 『식민주의 역사학으로서 만주건국대학에서의 역사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 전성곤, 『‘사면’ 개념을 통한 아이덴티티의 재현 논리: 도리이 류조(島居龍纈), 최남선, 이하 후유(伊波普猷)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19,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 _____, 『“五族協和”와 “民族이데올로기” 사이에서: 滿洲 『建國大學』과 최남선의 『滿蒙論』을 中心으로』, 『만주연구』4, 만주학회, 2006.
- _____, 『근대 일본의 ‘신화’ 담론 형성과 조선 ‘신화’ 인식』, 『일본연구』9,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08.
- 정준영,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실험과 육당 최남선』, 『사회와 역사』110, 한국사회사학회, 2016.
-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학의 여명과 근대적 상상지리의 형성: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최남선·마오둔(矛盾)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16, 민족문화사학회, 2000.
- _____, 『민족과 제국의 동거: 최남선의 만몽문화론 읽기』, 『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Abstract>

The creation of the origin of Manchukuo
and the Brith of ‘foundation myth’
—Focus on Choi Nam-sun's *Man-Mongol Culture*

Qian Chunhua

Contemporary context takes an very important role in studying the texts of late colonial period, especially the works with the background of Manchukuo. In this thesis, *Man-Mongol Culture* can be seen as another text that confirms the importance of context. On Apr. 30, 1938, Choi Nam-sun was appointed as the only Korean professor of the Kenkoku university in Manchuria. He worked in the 'History Study Group' and 'Cultural Study Group' of the Institute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taught "Man-Mongol Culture" course. *Man-Mongol Culture* was the lecture notes during that time. The Manchurian Kenkoku university was the best school to nurture the talents who advocated the founding spirit of Manchukuo and served the ideology of it. The research institutes of the university are trying to provide a rational and academic basis for such ideology, system and policy. Taking Pu Yi's visit to Japan as an opportunity, Manchukuo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concept of "Five-Race Harmony" and "Kingly Way" advocated the "Emperor Politics" and then emphasized Shinto and regarded Amaterasu-ōmikami as the founding god in late colonial period. Therefore, the Manchuria needed a new origin and it had to be done through cultural studies. Choi Nam-sun's *Man-Mongol Culture* was born in the context like this. In

Man-Mongol Culture, Choi Nam-sun focused on culture and considered the myth as the cultural origin. According to him, the origin myth of Northeast China was the founding myth of Buyeo. Such argument actually considered the Manchurian region as the origin of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Korea and Japan. However, the emphasis on the myth of Buyeo which was considered as the cultural origin seemed to emphasize that Korea was the origin of Japan. It successfully reproduced the origin of Manchukuo, and at the same time, highlighted the presence of the Koreans people. Like this, it was a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resistance.

Key words: Choi Nam-sun, *Man-Mongol Culture*, founding spirit, Five-race Harmony, kingly way, Shinto, foundation myth

투 고 일 : 2020년 8월 2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